

(주소) 16488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전화) 031-231-7255 (팩스) 031-278-7035

배 포 일	2024.01.12.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 문의
보 도 일	2024.01.13.				
'박물관이 영화를 만났을 때' 제1회 박물관영화제 개막식 성료		2	1	www.ggcf.kr	정책실 서동빈(231-7255)

'박물관이 영화를 만났을 때' 제1회 박물관영화제 개막식 성료



△제1회 박물관영화제 개막식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1월 10일, 경기도박물관이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1회 박물관영화제 (Museum CineFest, 이하 MCF)' 개막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영화제는 박물관과 영화가 융합된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자리로, 유물과 영화를 통해 관객에게 다층적인 문화적 해석을 선사하고자 기획되었다. 박물관의 유물이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해, 유물 속 의미

를 영화적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독특한 접근이 돋보였다.

개막식은 배우 김규리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심재인 경기도박물관협회 회장, 정용재 국립고궁박물관 관장 등 박물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과 김홍준 한국영상자료원장 등 영화계 대표들이 영화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동호 전 이사장은 "고대 문화와 첨단 매체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영화제가 탄생했다"며 이번 영화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막작으로 상영된 영화 '관상'은 권력 다툼과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작품으로, 영화 상영 후 경기도박물관 정윤희 학예사가 진행한 '관상과 초상 사이'라는 주제의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조선시대 초상화와 영화 속 관상학적 해석을 연결하며, 박물관의 유물과 영화의 만남을 깊이 있게 탐구했다.

이번 영화제는 유물과 영화의 독특한 만남을 통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해석의 기회를 제공하며, 박물관의 유물을 보다 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방식으로 조명했다. 영화 '역린', '상의원', '이재수의 난', '황진이' 등과 관련된 다양한 토크콘서트도 준비되어 박물관과 영화가 상호 작용하는 흥미로운 장면을 연출할 예정이다.

경기도박물관 이동국 관장은 "유물은 정적이고 영화는 동적이다. 두 가지를 비교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1회 박물관영화제는 박물관과 영화라는 두 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들에게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선사하며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박물관이 영화를 만났을 때"라는 슬로건 아래, 역사와 영화, 유물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영화제는 1월 한 달 간 매주 토, 일요일에 만나볼 수 있다.